

두 갈래의 길,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 이름 : 장군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과테말라 사무소 재무 부서
- 직위/직급 : 주니어 재무 어시스턴트
- 지원경로 : UNV
- 근무기간 : 2022.09.01. - 2023.02.28.

막연한 꿈과 막연한 길

이 글을 통해 부끄러운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목적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동료 및 후배분들께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혹여 다른 길을 가시게 되었다면 그래도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나 그랬을 법하게 대학 입시를 앞둔 때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도 없던 시절 학과 목록을 뒤적이다 국제학부를 발견했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막연히 해당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인생의 첫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크게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그저 당연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를 허비하기에 바빴습니다. 운이 좋게 카투사로 선발되어 남들보다 조금 편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단지 수능 스페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교환학생은 자연스럽게 멕시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멕시코에서의 경험 덕분에 외교부 지원으로 칠레에 위치한 중남미카

리브경제위원회(ECLAC)에 인턴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유엔에서의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썩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중남미 본부답게 큰 규모의 멋진 빌딩에서 각자의 일을 해나가는 직원들 모두가 전문적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경제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부서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6개월의 인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때는 나도 곧, 인턴이 아닌 컨설턴트나 직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조금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지막 한 학기만을 남겨둔 졸업예정생이 되어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기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준비된 계획은 없었고, 막상 국제기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으면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대기업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즈음 저는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의 취업 게시판을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기업이 마감이고, 어느 기업의 서류전형 발표가 났고, 면접 스테디를 모집하는 글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 학우들의 모습이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에 다니는 일도 멋진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돈 많이 준다는데 나도 한 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취업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쌓인 해외 경험으로 해외 영업이나 소싱 등 수출입 관련 직무에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졸업 후 진로였지만 그래도 해외 업무는 국제기구에 받은 답이었지 않냐면서 위안 삼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회사의 면접에서 면접관이 “장군씨 경력을 보면 국제기구나 공기업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노라고 꾸며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화가 아직도 가끔 생각나는 걸 보면 그 순간 스스로에게 실망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기업에 일 년만 다녀보자, 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안주하여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다도 사회초년생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의 출근이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출근길 커피 한 잔, 점심시간의 맛집 탐방, 가끔 저녁에 좋은 술을 한잔하는 것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사기업의 업무가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고 사업부에 인사 메일을 드릴 때 “그동안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대단한 과장과 약간의 냉소가 섞인 말이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소싱 담당자로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억 원에 이르는 상품을 발주하고, 현지 공장의 생산을 점검하고, 그 물건들을 배에 실으면 몇 주 뒤에는 전국의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가끔 매장 앞을 지나갈 때면, 이게 내가 만든 거잖아, 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켠에 묻어둔 국제기구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 꿈을 좇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럼 양다리를 걸쳐볼까, 하는 차선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야간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엔

대학원 면접에서 커리어 플랜을 묻는 질문에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현재의 회사가 아닌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기를 쓸 수 있게 해준 유엔봉사단(이하 UNV) 파견 전 당시 면접관이셨던 주임 교수님께 “그때 말씀드렸던 포부대로 대학원에 있는 동안 커리어를 전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인사드렸고, 교수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에 대하여 여전히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일도 학업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가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혼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외교부 청년 UNV 선발 공고에서 소싱 관련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튀르키예의 유니세프(UNICEF)였고, 추석에 고향도 내려가지 않은 채 면접을 보았습니다.

UNV의 지원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원자들의 단체채팅방에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각 기관마다 다른 전형 일정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면접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의 경력에 매우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만만했으나,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가 되었고 파견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코이카 대학생 UNV에 또 소싱 직무가 나왔습니다. 이번이 진짜 기회라는 생각에 과테말라 유엔식량농업기구(이하 FAO) 해당 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이번에는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지금의 일이 나의 운명인가, 하며 낙담하던 와중에 같은 기구의 소싱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는 재무 부서의 추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여느 때보다 정성 들여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이번에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과테말라 UNV 담당자로부터 아직도 재무 포지션에 관심

이 있는지 묻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마 여러 번에 걸쳐서도 적절한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의 관심을 표명했고, 면접부터 선발까지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UNV 지원에서만 세 번의 고배를 마신 후에야 FAO 과테말라 사무소의 재무 어시스턴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두 갈래의 길이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가보지 못한 길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수기의 목적의 첫 번째는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고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저와 같이 길을 한 번 잘못 드셨더라도 여전히 길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희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어느 길을 가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꿈과 막연한 길’로 표현한 저의 대학 시절은 목표가 없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한 막연한 경험들이 저를 지금 과테말라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대기업’에 들어가 보낸 3년여의 시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에 소싱 전문가라는 해답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다시 한번, 유엔’에서 막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길을 앞서가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걸기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